

“쿠팡 게 섰거라”... 위메프 ‘값 선순환’·티몬 ‘타임커머스’

위메프 “가격 선순환구조 집중”
하송 신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티몬 작년 신규가입자 48% 급증
3050억 유상증자 완료, IPO 본격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공식화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위메프와 티몬이 추격에 나섰다.

위메프는 신입 대표 선임과 함께 ‘가격 선순환’ ‘플랫폼 고도화’ 카드를 꺼냈으며, 티몬은 ‘타임커머스’를 앞세워 올해 IPO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0년대 쿠팡, 위메프, 티몬은 ‘소셜커머스(지역 기반 서비스로 공동구매의 딜 형태를 지향)’ 업체로 출발했다. 간편한 모바일 거래,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 큐레이터가 선별한 제품을 선보이는 등 고객우선주의 서비스 전략으로 구매층을 확보했다.

하지만, 쿠팡이 2014년 익일 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도입, 과감한 투자



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자 위메프와 티몬은 방향을 전환했다. 양사는 적자 폭을 줄이는 데에 집중했다. 쿠팡의 적자를 감수한 투자와는 반대되는 행보다.

위메프는 한 때 신선식품 익일 배송 서비스 ‘신선생’과 직매입 서비스 ‘윈더배송’을 운영했지만, 2018년부터 물류, 배송 비용 부담이 큰 직매입 사업을 줄여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절감한 비용은 가격을 낮추는 데 투자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는 가격경

쟁력을 강화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가격을 낮추는데 투자해 중소 파트너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손익개선 모드를 이어가는 한편, 플랫폼 고도화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적은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줄어든 386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액은 5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57억원) 대비 29% 개선된 수

(위메프 2020년 실적 요약)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19년	YoY(%)
매출	3864	4653	-17%
영업손실	540	757	+29%



하송 위메프 대표이사

타임커머스를 본격화하면서 고객 지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전년 대비 47.8% 증가했으며, 10대 연령의 가입이 3배 가까이 늘었다. ‘10분어택’, ‘100초어택’ 등 대표적 타임커머스 매장은 티몬 내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임커머스 관련한 검색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매장 검색을 통한 구매자는 7배, 매출은 8배, 구매 단가도 2배 이상 크게 올랐다.

이와 함께 티몬은 최근 305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함에 따라 주관사인 미래셋세우와 함께 기업공개(IPO)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티몬은 PSA컨소시엄이 국내 기관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255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기존 최대주주인 콜버그크레이비스로버츠(KKR)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도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고 밝혔다.

티몬 이진원 대표는 “티몬의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순천향대 선별진료소에 줄 선 시민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200명을 넘어선 21일 서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

작년 상장사 심사·감리 과징금 95억

금감원, 총 123곳 종결 11.5% 줄어
위반 78곳 지적률 63%, 4%p 하락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위반사례가 늘어난 데다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 부과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개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전년 대비 11.5%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상장사 43개사,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80개사다.

123개사 가운데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다.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높아졌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반면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에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범위와 관련한 조치양정

기준 완화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회사가 크게 늘었지만 작년에는 선정기업 대부분을 조치해 지적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개사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은 15개사다.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 적발 비중은 17.9%로 회계정보증가 등으로 전년 8.5% 대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4배 기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과실비중이 71.8%로 전년 67.1% 대비 높아졌다.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2019년 23개사에서 2020년 17개사로 감소했지만 부과총액은 49억8000만원에서 94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5분기째 코로나19 충격... IMF 이후 최장기간

한경연, 작년 4분기 GDP 462.8조
2019년 4분기의 98.7%에 머물러
민간소비 L자형 침체 93.4% 최저치

코로나19가 여전히 국내 경제를 위협하면서 외환위기 충격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와 업종별 격차도 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GDP가 462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468조8000억원)의 98.7%에 머물렀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전후 분기 GDP 최대 감소율을 계산해 경제 위기별 충격 강도를 측정된 결과, 코로나19는 4.4%로 외환위기(7.6%)보다 적고 금융위기(3.2%)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위기 지속기간은 5개 분기째 지속 중

이다. 외환위기가 6개 분기, 금융위기는 4개 분기로, 일단은 중간에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특히 민간소비는 L자형 침체로 지난 4분기에 전년 비 93.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른 경제 위기 사태에서는 1~2분기만에 민간소비가 회복했지만, 코로나19에서는 민간소비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경연은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부진을 일부 만회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2분기 최저수준을 기록한 후 빠르게 회복해 지난 4분기 코

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최대 수출국 중국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다른 나라들도 경제 활동을 재개한 영향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컸다. 제조업이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하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빠른 회복에 성공했다.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해 코로나19 초기 타격이 있었지만, 이후 비대면화로 주력 산업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위기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대면·서비스업의 상황은 '98년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하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금융위 “고용 등 고려 추가지원이 낫다”

>> 1면 ‘정부, 쌍용차 지원...’서 계속

다만 인도는 자국기업의 해외보유지분 25% 이상 감자를 금지하고 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힌드라는 경영권을 잃어 한 푼도 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HAAH는 쌍용차에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해 대주주(51%)로 올라설 경우 산업은행이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가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사업계획을 평가하

기 어렵다”며 “잠재적 투자자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평가후 금융지원 결정을 하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협력업체보다 쌍용차 직접 지원’
그러나 정부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면서 산업은행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협력업체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협력업체를 지원할 것이라면 쌍용차를 지원하고 쌍용차가 협력업체를 지원하면 될 것”이라

며 “산업부 장관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이 나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쌍용차 회생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나와 보인다. 이 회장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이 결국 P플랜 성공을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 중앙은행의 인수 여부와 HAAH이 P플랜 동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되면, 산업은행 측에서 사업계획과 회생계획안 평가를 거쳐 3월 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